정명천년 암각화 문양디자인

제2장

2017 군정 성과 및 2018 군정 추진계획

제 1 절 2017 군정 성과

제 2 절 2018 군정 추진계획

제1절 2017 군정성과

1. 총 괄

민선 제6기 후반기를 맞아 '인구 30만, 예산 1조 시대 울주', 군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로 발돋움 하고자 비전을 '새로운 도약, 행복누리 울주'로 정하고 문화 관광과 경제, 복지, 안전 등 모든 분야에 온 힘을 다한 해였다.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세계 속의 문화 관광 도시로의 발전을 위해 제2회 울주세계산악영화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세계를 향해 더 큰 걸음을 내디뎠으며, 6만 2천여 명의 관객이 찾아 세계 3대 영화제로의 도약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특히, 3년 개최가 가입 필수 조건인 국제 산악영화협회에 우리 군이 2년 만에 정회원으로 가입하는 쾌거를 거뒀다. 또한, 울산옹기축제가 제5회 대한민국 축제콘텐츠 축제경쟁부문 대상 수상과 함께 2년 연속 문화체육관광부 유망축제로 선정되었다.

경제 분야에서는 활력 넘치는 경제도시를 만들기 위해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해외판로개척,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로컬푸드 직매장 개장 등 다양한 기업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고, 1조 9천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4,300여 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는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5월 기공식으로 본격 추진 중이다.

복지 분야에서는 더불어 행복한 복지 울주 실현을 위해 저소득층과 장애인, 다문화 가정을 위한 자립 지원 사업과 아동, 청소년, 노인을 위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또한, 육아 종합지원센터 본격 운영과 양육 공백 가정의 아이 돌봄 지원 사업 등 맞춤형 통합 육아 지원 서비스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의 드림스타트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받는 큰 영예를 안았다.

정주 환경 분야에서는 사람 중심 안전도시를 위해 신청사 건립과 복합행정타운 조성은 물론, 양질의 행정 서비스와 주민 편의를 위한 온양읍과 언양읍, 삼남면 신청사를 건립했으며, 편리한 도로·교통 기반 확충, 언양 중심시가지 거리 조성, 벚꽃길 경관 조성 등의 도시·가로경관 조성, 자연 친화적 하천 정비, 공영주차장 조성 등 쾌적하고 안전한 살기 좋은 도시 기반 구축을 마련하였다.

농·축산·어업 분야에서는 녹색농촌, 선진농업 실현을 위해 로컬푸드 직매장 개장, 농업인 소득안정 및 생산 기반을 확충하고, 친환경 농업 육성, 농산물 수출경쟁력 강화 및 판로를 다각화하였다. 또한, 축산업 사육기반 육성 및 가축전염병 예방, 어업 생산기반 육성 및 수산재해 예방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다.

교육 분야에서는 꿈을 여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해 관내 선바위, 옹기종기 도서관과 48개의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고, 울주 독서 한마당 개최 및 한 책 읽기 운동, 독서문화 진흥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책 읽는 울주 실현을 구체화하였다. 또한, 공교육 경쟁력 강화, 울주 군민특강, 맞춤형 평생학습사업 등 누구나 꿈을 열 수 있는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5년째 아프리카 희망 나눔 캠페인을 이어오고 있으며, 2017년은 재활용한 크레파스를 케냐의 농촌 마을과 학교에 전달해 지구촌 이웃사랑을 실천하였다.

2. 역점시책별 주요 성과

가. 신청사 시대, 내일의 시작

신청사는 청량 율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지하 2층 지상 10층 전체면적 41,563㎡로 총사업비 964억 원이 투입된 역점 사업으로 2017년 11월 30일 준공하여 12월 26일 역사적인 이전을 완료하였다.

23만 군민 모두의 염원이자 숙원사업이던 신청사가 완공되어 50년 넘는 청사 더부살이에서 벗어나 우리 군 지역 최초의 청사로 이전, 군의 정체성을 확고히 세우고 신청사를 중심으로 한 통합의 힘으로 인구 30만 미래 울주, 새 시대를 힘차게 열어갈 것이다.

나.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관광도시

주민 생활 속에서 함께 공감하는 문화 복지 환경을 조성하고 품격 있는 관광여건 조성과 국제적 관광도시로의 진입에 주력한 한 해였다.

우리나라 최초의 국제 산악영화제인 제2회 울주세계산악영화제에 6만 2천여 명의 관객이 찾아 세계 3대 산악영화제로의 도약 가능성을 확인하였으며,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 알프스 시네마 및 국제 클라이밍센터 활성화와 번개맨 우주센터 개관 등 영남알프스 일대가 국제적 관광명소로 발돋움하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또한, 진하해수욕장 일원의 해양관광자원을 활용하여 울산진하 PWA 세계윈드서핑대회 및 세계여자비치발리볼대회, 전국윈드서핑 대회 등 국내·외 각종 해양스포츠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해양레포츠 도시로의 성장 기반을 구축하였다.

아울러 거리공연 운영, 울주 오디세이,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 및 체육행사 지원을 통해 생활 속 공감 문화 환경을 조성하며, 울산옹기축제가 제5회 대한민국 축제 콘텐츠 축제 경쟁부문 대상 수상과 함께 2년 연속 문화체육관광부 유망축제로 선정되었다.

다. 기회가 있는 활기찬 경제도시

기업 투자유치 활성화와 해외 판로개척 마케팅 전략사업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기업과 군민의 상생 경제 기반 마련에 주력하였다.

1조 9,000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4,300여 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는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전국 최초로 국토교통부 투자 선도지구로 지정에 이어 2017년 5월 기공식을 시작으로 본격 추진 중이다.

또한, 일자리 안내 지원센터 운영으로 762명이 취업하는 값진 성과를 얻었으며, 민간분야 일자리 창출 지원으로 477명의 일자리 창출, 투자유치 보조를 통한 기업 투자유치 활성화로 17개 기업에 1,500억 원 투자, 450명의 신규고용이 이뤄졌다.

이 외에도 해외 판로개척 마케팅 전략사업에 관내 149개사가 참가해 1,244만 달러의 수출 계약을 달성하고 중소기업 지원 '기술닥터사업'으로 55개 업체에 기술 주도형 기업지원, R&D 역량강화 지원, 융합산업·창조기업 육성 지원 하였으며, 중소기업 663개 업체, 소상공인 2,222명에게 경영안정자금이 지원되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였다.

라. 사람중심, 쾌적하고 살기 좋은 안전한 도시

안전하고 쾌적한 살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고자 읍면 청사 건립은 물론 편리한 교통 환

경 조성, 가로 경관 정비 및 도시 숲 조성, 각종 재난재해 피해의 사전 예방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사업을 추진하였다.

인구 30만 미래 울주 건설의 초석이 될 신청사와 복합행정타운 조성은 물론, 양질의 행정 서비스와 주민 편의를 위한 복합문화 공간 제공을 위해 온양읍과 언양읍, 삼남면 신청사 건립도 차질 없이 추진하였다.

언양 중심시가지거리도 새롭게 단장했으며, 등억 야영장 및 작천정 다목적광장 사업, 작천정 벚꽃길 경관 조성 사업도 순조롭게 진행하였고 자연 친화적인 작괘천 친수 공간 정비로 산책로와 물놀이장 등 힐링 공간도 마련하였다. 또한, 군민의 안전을 위한 방범용 CCTV 54대를 추가로 설치하여 범죄 예방 및 도시 안전 기반을 마련하였다.

도로교통 분야에서는 만성적인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온양 동상~발리 간 도로, 범서 천상~장검마을 연결도로 개설 등 30여 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설치와 학교길 교통시설을 개선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였다. 이 외에도 대중교통 이용객 편의를 위해 10개소의 버스승차장 설치 및 5개소의 노후 승차장 교체, 주차난 해소를 위해 언양 다목적 공영주차장과 온덕 1,2마을 공영주차장을 준공하고 대운산, 범서 대리마을, 온산 영남마을 공영주차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마. 나눔·배려 더불어 함께하는 교육·복지도시

다 함께 행복한 복지 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맞춤형 복지 서비스 및 생활 속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발적 기부문화 확산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었다.

9개 읍·면 복지 허브화를 시행해서 사각지대 없는 주민 중심 복지 전달 체계를 구축하고 육아 종합지원센터 본격 운영과 아이 돌봄 지원 사업 등 맞춤형 통합 육아 지원 서비스에도 최선을 다한 결과 보건복지부의 드림스타트 최우수 기관에 선정되어 대통령 표창을 받는 큰 영예를 안았다.

권역별 복지박람회 및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설명회를 개최하고 지역자원·사례 발굴 및 연계, 사랑의 집수리 26세대, 102건의 나눔 푸드를 기탁하였으며, 착한 가게 612개 업소와 천사계좌 34,561계좌 모금으로 '착한 군' '천사군'으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였다.

노인복지를 위해 41개소의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를 하고 만 65세 이상의 청춘 일자리 사업으로 1,879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장애인 자립 지원 7개 사업에 4,625백만 원 지원 및 장애인 11,275명에게 장애 수당 및 연금 지원, 의료비 등을 지원하였다.

또한, 저소득층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과 자립지원 강화를 위해 자활 근로사업단 및 자활센터를 운영하고, 다문화 가족의 한국 사회 정착을 위해 방문교육 등 7개 사업을 5,804회 및 친정 나들이 사업 등 5개 사업을 108회 실시하였다.

이 외에도 출산율 제고와 아동복지를 위해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 출산장려금 및 복지보험료 지원 등 다양한 출산장려 시책을 펼쳤으며, 육아 종합지원센터 개관과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아동 양육시설 지원 등의 아동복지 서비스, 드림스타트 사업을 통해 인구 30만 울주 건설의 원동력을 확보하는 데 노력하였다.

미래를 위한 가장 가치 있는 투자가 교육인 만큼 글로벌 인재 육성과 평생학습 문화 및 책으로 소통하는 문화 확산에도 역량을 집중하였다.

평생학습 분야에서는 울주 세계시민교육, 울주 지속 가능발전 평생학습 대전 등 지속가능발전교육 울주 RCE를 확산하고 울주 RCE 지구촌 희망 나눔 캠페인을 통해 아프리카 케냐에 희망 티셔츠 12만 7천 벌을 기증하는 등 국경을 초월한 이웃사랑으로 배움과 나눔의 선진학습도시로서의 대외 이미지를 향상했다. 또한, 온 가족 울주 한 바퀴, 3040 부모 공감 콘서트, 울주 아카데미, 울주 오피니언리더 교육, 울주 군민 특강을 운영하여 큰 호응과 함께 주민 만족도를 향상했다.

교육 분야에서는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하여 초등학생·중학생을 대상으로 영어캠프 운영 및 초등학생 4~6학년 대상으로 영어 스피치 대회 실시, 중학생 100여 명을 대상으로 과학영재 멘토링 사업 등 다양한 체험 활동 및 실험·실습 프로그램 운영으로 인성교육과 지속 가능한 교육을 실현하였다. 이 외에도 방과·후 학교, 특기적성 프로그램, 정보화 사업 및 교육 환경개선 사업, 명문고 육성 및 신설 인문계고 지원, 무상급식비 및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으로 학교 발전에 이바지하였다.

또한 '책 읽는 소리가 아름다운 울주'를 위해 사회 각계각층이 함께 만드는 '주민 참여형' 독서문화축제의 장을 마련하고, 북 콘서트, 책탑 및 책 놀이터 등 다채로운 행사를 추진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독서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선바위 및 옹기종기 도서관과 48곳의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여 생활 속에 스미는 독서문화 확산에 이바지하였다.

바. 미래가 있는 농업, 살맛 나는 농촌

소비패턴 변화에 따른 농산물 소비 감소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생명산업으로 활성화시켜 나가기 위해 최첨단 ICT 융복합 환경제어 시스템을 구축해 경영비용을 줄여 나가는데 이바지하였다.

신 소득 미래 유망 농업인 곤충산업 활성화 등 미래 식량자원 확보와 팜 투어, 체험 텃밭 조성 등 귀농·귀촌인 들의 안정적 정착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고 귀농·귀촌인 민원 상담센터를 운영해서 도시민의 농촌 유치에도 노력하였다.

자력 증진을 통한 친환경 고품질 쌀을 생산해서 지역 쌀의 상품 가치를 높이고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 건립 연구용역으로 안전한 통합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서 우리 농산물의 안전성 강화와 질 좋은 농산물 공급에도 이바지하였다.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 및 대체작목 육성 등으로 생산성 및 상품성 향상, 농가 소득 증

진에 이바지하였으며, 수출경쟁력 강화 및 판로 다각화로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청량과 울산원예농협에 이어 범서, 삼남농협에도 로컬푸드 직매장을 설치하였다.

축산분야에서는 ICT 한우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 고능력 한우 암소 생산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양질의 조사료 공급 확대로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봉계경관 단지 조성 및 언양 한우불고기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로 농가 수익 증대 및 특구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또한, 구제역 백신 접종과 농장·철새도래지 소독 등을 통하여 우리 군의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을 사전 차단함으로써 가축전염병 청정지역을 유지하였다.

수산분야에서는 수산자원 서식 여건을 조성하여 수산 자원 증대 및 재생산력 증강을 통해 어업소득 제고 기반을 조성하고 감소하고 있는 수산종묘의 지속적인 방류를 통해 어업 생산성 향상과 어민 소득증대에 이바지하였다.

제2절 2018 군정추진계획

1. 추진방향

민선 6기 마지막 4년 차를 마무리하고 새롭고 희망찬 민선 7기 군정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민선 7기 비전을 '사람이 희망인 울주'로 정하고 다음과 같이 7대 역점 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역 점 시 책

1. 활력이 넘치는 경제도시
2. 출생부터 노후까지 따뜻한 복지도시
3. 누구나 안심하는 안전도시
4. 사람이 희망인 교육도시
5. 사람이 머무는 글로벌 문화관광도시
6. 군민이 주인인 참여도시
7. 사람중심 균형잡힌 행복도시

2. 역점시책별 추진계획

첫째, 활력이 넘치는 경제도시 조성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기업과 군민이 상생기반을 다질 것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자금 지원과 신규 투자 희망기업에 투자유치 보조금을 지원하고 해외시장 개척 지원을 통해 세계적 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를 차질 없이 조성해서 동남권 에너지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핵심 동력으로 만들 것이다.

일자리 창출 전략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일자리 사업을 발굴하고 중소기업 청년인턴 사업, 일자리 안내지원센터 운영 등 기업 지원과 고용 촉진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곡천, 덕하시장 주차장 조성과 언양 공설시장 노후 장옥 정비 등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더욱 노력할 것이다.

초고속 변화의 시대의 발 빠른 대응을 위해 4차 산업혁명 분야별 마스터플랜과 종합발전계획 수립, 전문가 특강 및 포럼 개최로 4차 산업혁명의 선제적 대응책과 발전전략을 수립하여 미래 울주 발전을 위한 초석으로 삼을 것이다.

둘째, 출생부터 노후까지 따뜻한 복지도시

출생부터 노후까지 걱정 없이 다 함께 잘사는 복지도시 울주를 실현할 것이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개원하고, 출산 장려·지원 사업, 육아 종합지원센터 활성화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울주 만들기에 더욱더 노력할 것이다.

맞춤형 현장 복지를 위해 복지 허브화 전 읍·면 확대와 맞춤형 급여 지원을 추진하겠으며 치매안심센터, 보훈회관, 중부·남부청소년수련관 건립 등 공공복지 인프라 확충에 노력할 것이다.

고령화 시대에 발맞춰 100세 시대를 위한 노년 건강 활력 지킴이 사업, 노인 일자리 사업 등을 시행하겠으며 남부노인복지관 증축과 경로당 신·증축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다.

셋째, 누구나 안심하는 안전 도시

군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편안하고 안전한 도시 기반을 구축할 것이다.

범죄 및 안전사고 우려지역에 CCTV와 비상벨을 설치하고 골목길 도로표지판 설치와 노후 담장 보수 및 벽화 그리기로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범죄 예방 도시디자인(셉테드) 사업을 온산 덕신지역에 시범 추진할 예정이며, 안전마을 만들기, 안전어린이보호구역 정비 사업 등 생활밀착형 안전정책을 추진하고 재난의 선제 대응과 신속한 정보 전달을 위해 재난 예·경보 시스템을 더욱 확충할 것이다.

넷째, 사람이 희망인 교육도시

누구나 배움의 기쁨을 누리고 성장해 나아가도록 평생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찾아가는 학습 서비스와 군민 특강, 주민 역량 강화 교육으로 자아실현의 계기를 마련하고 필요한 교육으로부터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더 많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창의적 인재 육성 프로젝트로 교육의 질을 높이고, 울산 최초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시행에 이어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해 학부모들의 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다섯째, 사람이 머무는 글로벌 문화·관광도시

영남알프스를 대한민국 산악관광 1번지이자 글로벌 산악관광 브랜드로 만들고, 생활밀착형 문화 환경을 구축해 군민 모두 문화로 행복한 울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행복 케이블카 사업, 홍류폭포 테마 숲길 조성 사업 추진, 산악영상문화센터 건립, 작천정 별빛 야영장, 등억 야영장, 작천정 다목적 광장 사업 완료로 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반도 탄탄히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제3회 울주세계산악영화제를 더욱 성공적으로 개최해 세계 3대 산악영화제로의 입지를 확실히 굳히고 옹기마을 6차 산업 발효식품 체험관 조성, 전통 가마 재현행사, 조형물 설치 등으로 옹기마을을 국내 유일 옹기 관광지로 특화하고 유망축제인 울산 옹기축제가 우수축제로 성장할 수 있도록 힘을 쏟을 예정이다.

서울주문화센터 건립, 웅촌문화복지센터 및 울주해양레포츠센터 운영 등 문화 환경 구축과 간절곶을 종합적인 스포츠 메카로 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다.

여섯째, 군민이 주인인 참여 도시

정책 결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주민의 뜻을 실현하는 군민이 주인 되는 울주를 만들 것이다.

주민 참여 예산제 비중을 확대하여 군민이 공감하는 정책을 군민과 함께 만들어나갈 것이며 다양한 계층과 소통·공감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군민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해 나갈 것이다.

주민 주도의 상향식 마을공동체 만들기로 자율적 협력, 소통과 나눔으로 마을공동체를 복원하여 행복하고 따뜻한 울주를 실현할 것이다.

일곱째, 사람중심 균형 잡힌 행복도시

도시 숲과 공원 조성으로 삶의 여유와 힐링을 느낄 수 있는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명품가로수길 조성, 간절곶 스카이워크 설치, 대운천 친수공간 조성을 완료해 이용자 중심의 친환경 도시기반을 만들어나갈 계획이며, 만성적 도심 주차난 해결을 위해 주택가에 미니 주차장을 만들고 범서읍 백천 마을 외 5개소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것이다.